

# 북한의 학교 교실에 대한 미시적 연구: 고프먼(E. Goffman)의 연극적 접근(Dramaturgical Approach)을 중심으로

안지호(安志祐)\*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사회학자 고프먼의 연극학적 접근에서 발전시킨 주요 개념인 대면상호작용, 체면, 팀, 무대, 인상관리, 상황(사건) 등을 활용하여 미시적 사회공간인 북한의 교실을 다루고 있다. 교실을 무대로 담임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담임교사가 학급간부인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를 선출하는 상황(사건)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담임교사는 앞으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책임질 열성학부모와 관계를 맺게 된다. 학급간부라는 자리를 매개로 담임교사-간부학부모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경제생활을 후원하는 열성학부모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행정을 도와줄 충성스런 학생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가 수행한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있어 학급간부 선정은 자신의 경제적 생활 유지는 물론 교실에서 교사의 대리인을 뽑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연구는 학급간부선출이라는 상황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다양한 대면상황을 다루고 있다.

주요어 : 고프먼, 미시사회학, 무대, 대면상호작용, 체면

## I. 들어가면서

연구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사회학자 고프먼의 이론을 북한 연구에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도 연구자는 사회학자 고프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사와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프먼의 미시사회학적 접근과 북한의 교실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이 연구가 촉발되었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실험성이다. 지금까지 넓게는 북한 연구 좁게는 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렌즈를 통해 북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실험적인 연구로서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론과 연구 대상의 정합성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가급적이면 직접 수집한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고프먼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학자 고프먼은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의 맥락을 통해 개념에 생명을 불어 넣었는데 연구자도 가급적이면 고프먼의 방식을 따라 자료를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귀납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프먼의 개념 가운데 북한의 교실이라는 특수성과 맞지 않는 개념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인 교실은 하나의 작은 북한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 사회공간인 교실을 통해 북한의 사회적 변화 즉 시장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사회적 변화에 끝까지 저항했던 계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당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사회공간인 북한의 교실 연구를 통해 당의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과 자료수집

### 1. 고프먼의 연극적 접근

#### 1) 연극: 체면유지와 인상관리

사회학자 고프먼은 행위자의 미시적인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연극이라는 은유를 활용하였다. 고프먼에 따르면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연자는 자신의 특정한 자아만을 관객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행위자와 관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공연자는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자아를

보이기 위해서는 인상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공연자의 연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자는 효과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관객을 통제해야만 한다(Ritzer, 2010: 508-510). 이렇듯 공연자들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관객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프먼이 주목한 인간 행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자아를 극대화하고 원치 않는 자아를 감추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고프먼은 체면(face) 개념을 사용하였다. 고프먼에게 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이다. 결국 체면은 개인이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회적 자질을 지닌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Goffman, 2013: 18).

## 2) 공연을 위한 미시적 사회 공간: 무대

고프먼이 즐겨 사용하는 연극이라는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들의 인상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인 무대가 설명되어야 한다. 고프먼 연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분석한 사회적 공간, 무대가 가진 미시적 성격이다(Goffman, 2013: 294-295). 우선 행위자는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인상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대는 공연자와 관객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호 대면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고프먼이 주로 분석한 사회적 공간은 바로 공연자와 관객의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 이루어지는 미시적 세계이다(Goffman, 2013: 13-14). 고프먼은 미시적 사회공간인 무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무대, 무대뒷면 그리고 바깥으로 세분화하였다. 앞무대(front)는 일종의 공식적 사회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공연자들의 연기는 고정적이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객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황정의를 한다(Goffman, 2016: 36). 고프먼은 앞무대를 무대장치와 개인의 무대장비로 더욱 세분화시켰다. 무대장치(Setting)는 가구, 장식품, 공간배치, 공연 도중과 전후의 인간 행동에 필요한 온갖 소품을 의미한다(Goffman, 2016: 37). 즉 행위자들이 연기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무대장비는 표현장비들을 뜻하는데 관객은 무대장비를 통해 연기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기자들이 무대장비를 차리고 무대로 나갈 것을 기대한다(Ritzer, 2010: 510). 무대뒷면은 앞무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나, 여러 비공식적 행위들이 나타나는 장소이다. 앞무대에서 공연자는 관객들에게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원치 않는 모습을 억제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무대뒷면은 공연자들이 공연에서 조성된 인상과 어긋난 면이 드러나는 비공식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Goffman, 2016: 145-146). 일반적으로 무대뒷면은 앞무대와 가까이 있으면서 독립된

공간이다. 따라서 연기자는 무대뒷면에서 관객과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무대에서의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긴장을 푸는 등 무대 위에서의 연기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영역인 바깥이 있는데 이것은 앞무대도 뒷면도 아닌 공간이다 (Ritzer, 2010: 510-511).

## 2. 교사의 체면을 중심으로 교실 들여다보기

북한에서 유교는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비판을 받는 동시에 유교의 핵심인 충효 사상과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정치사상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주체사상과 유교적 전통의 결합을 통해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북한사회에 있어 유교의 영향은 교육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엄격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은 교사들이 과거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체면(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긍정적 사회적 이미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졌음을 의미한다.<sup>1)</sup> 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장마당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시장화가 급격히 진행된 북한 사회에서 학생은 교사에게 제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높은 교육열과 시장화는 교사-학생의 대면 상호작용에 있어 학부모라는 주요 배역을 등장시키고 학교에서 이들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인상관리 전략을 강요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인 교실에 주목하고 있다. 담임교사와 학생은 교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정의(Goffman, 2016: 24-25)<sup>2)</sup>에 따라 공연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담임교사들의 인상관리를 중심으로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교사-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대면상황과 행위자들이 설정한 상황 정의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대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고프먼의 미시 사회학은 행위자들의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자세히

1) 그 사람은 교수고, 가끔부분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면서 양말 장사를 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을 보면 양발을 진짜 많이 사주었는데... 지나가다가 딱 선생님이 서 있으면 가서 선생님 양말 저 좀 주세요(면답자 9. 2016. 9. 24).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훔쳐서라도 먹는데 이 사람들은 훔칠 재간도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항상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지식해요(면답자 7. 2016. 7. 9).

2) 개인이 처음에 투명한 상황 정의가 그의 후속 협력 활동을 계획하게 한다는 행동의 관점을 강조하려면, 상황정의에 독특한 도덕적 성격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상황 정의에 담긴 도덕적 성격이다(Goffman, 2016: 24-25).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적 관점을 제공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수집

지금까지 북한의 학교와 관련된 연구는 학교 제도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sup>3)</sup>로서의 학교 기능에 관한 연구, 학교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학교 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항규(2000), 김종건·황재인(2002), 임미화(2003), 정호범(2005), 박찬석(2008)의 연구가 있다. 이들 학교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교과서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학교와 교육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들 학교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북한 학교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로서의 학교, 교수법,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의 교육제도를 설명하고 있다.<sup>4)</sup>

다음으로 학교를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윤종진(2005), 차승주(2010), 임재천(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학교의 정치조직과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기능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학교의 권력은 주로 수령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권력현상이 수령의 체제유지 및 강화라는 거시 권력현상에 수렴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거시적 권력관계로 수렴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미시권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권력은 의사소통을 통해 미시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시장화로 인하여 학교의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의 미시적 권력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새로운 변수인 시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생활세계(Lebenswelt)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Goffman, 2016: 302-303).

마지막으로 북한 학교에 대한 문화적 연구는 한만길(1995)과 조정아의 연구(2003, 2004)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사회공간인 학교를 선생-학생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규범이라는 문화적 개념과 학생들의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비교적 오래 전에 연구되어 최근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가 사용한 현상학적 사회학, 생애사 연구는 문화를 다루는 중요한 접근방법이기는 하지만 문화현상을 정치하게 다룬 이론적 틀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의 학교문화를 분석할 보다 정치한 개념과 틀이 필요하다.

3)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튀세(L. Althusser)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억압적 국가기구(군대, 경찰, 검찰 등)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종교, 학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라(Don't take the world at face value)”는 고프먼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Goffman, 2016: 329).

이에 연구자는 고프먼의 연극적 접근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프먼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최근 들어서 고프먼의 이론을 활용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초기 고프먼 사회학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광기(1989, 2000)의 연구는 고프먼의 연구를 현상학적 사회학(Peter Berger)과 민속방법론(Harold Garfinkel)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강수택(1995)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입장에서 고프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박치현(2004)은 독일출신의 사회학자 엘리아스(Norbert Elias)의 권력 개념을 고프먼과 비교하고 있다. 최근의 고프먼 연구의 경향은 고프먼의 미시사회학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사회현상(인터넷 사용, 여성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최종렬, 2011, 장현미, 2014).

이 연구는 두 명의 교사출신과 학생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면접을 바탕으로 면접문항을 재구성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sup>5)</sup> 면접과 면접대상자의 정보는 아래표로 정리하였다.

<표 1> 면접대상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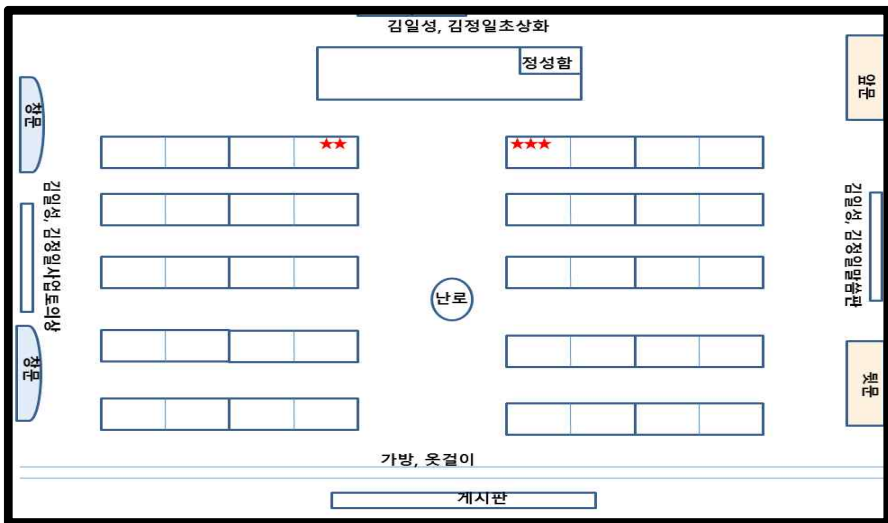
코드번호	성별	탈북시기	나이	직업	면담일시
면담자 1	여	2011년	20대	학생	2016. 6. 15
면담자 2	남	2014년	40대	교사(초급중학교)	2016. 9. 27
면담자 3	여	2011년	30대	교사(소학교)	2016. 5. 29
면담자 4	남	2012년	30대	교사(소학교)	2016. 10. 19
면담자 5	남	2014년	20대	학생	2016. 10. 15
면담자 6	여	2011년	40대	교사(초급중학교)	2016. 9. 14
면담자 7	여	2011년	50대	상점근무	2016. 7. 9
면담자 8	남	2011년	50대	관료	2016. 9. 11
면담자 9	남	2014년	50대	교사(초급중학교)	2016. 9. 24

5) 연구자는 북한 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질문을 추출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북한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고프먼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북한의 교실을 담임 교사와 학생의 양자적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파일럿 테스트의 분석 이후 학부모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 III. 본론

#### 1. 교실: 교사의 앞무대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하나의 작은 사회적 공간이다.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도덕적 질서, 고프먼이 말한 상황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교실에는 이러한 상황정의를 나타내는 다양한 무대장치들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교실 정면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다. 또한 교실의 양쪽 벽에는 김일성·김정일 사업토의상<sup>6)</sup>과 김일성·김정일 말씀판<sup>7)</sup>이 붙어 있다. 또한 교탁 안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청소하는 특별한 도구가 들어 있는 정성함<sup>8)</sup>이 놓여 있다. 교실 뒤에는 당의 교육정책, 학교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게시판<sup>9)</sup>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 교실의 무대장치와 학생간부의 자리배치

- 6) 이쪽 벽에 김일성 김정일 사업토의상 그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사업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면담자 3. 2016. 5. 29).
- 7) 이쪽 벽에 말씀판이 있어요. 김일성말씀 김정일 말씀이 있어요. 교시판이죠(면담자 3. 2016. 5. 29).
- 8) 교탁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정성함이 있어요. 교탁 안에 보위사업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상화를 관리하는 청소함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청소도구가 있어야 되요. 정성함 걸게,(면담자 3. 2016. 5. 29),
- 9) 밑에서부터 위에 벽보가 한 80에 벽보 규격 아시죠, 벽보 규격이 있어요. 아무튼 콘크리트로 예전에는 박스를 쳤어요 나무로 했는데 지금은 벽으로 시멘트로 미장해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위에는 백두산 학생들 그림이 아니라 규정된 것이 있어요. 정일봉 백두산 천지를 그린다 던가 일단 그래요. 그리고 자랑 거리들, 꼬마계획성적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상부위원장은 한 컷을 맡아요(면담자 3. 2016. 5. 29).

지금까지 기술한 교실의 무대장치는 북한에서 교실이 교육 기능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 중요함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 장치이다. 매주 토요일 교실에서 진행되는 정치행사인 생활총화시간에 이러한 무대장치는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돋구는 중요한 표현도구들이다.

분위기가 다르죠. 일상에서 수업 받을 때 그냥 교실이죠. 분단위원장이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분단위원장이 교탁 바로 옆에 앉는 거죠. 분단위원장이 지금부터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때는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고 긴장도 많이 들고요. 어떤 지적을 당할까봐, 생각도 들고 서로가 호상비판을 하잖아요(면담자 6. 2016. 9. 14).

담임선생이 집행하고 엄숙하고 수업은 물렁물렁해도 되고 딱히 규칙은 없고 어쩔 때는 웃기도 하는데 생활총화 때는 웃는 거는 없으니까.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하고(면담자 9. 2016. 9. 24).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북한사회의 시장화는 이러한 교실의 정치의례를 강화하는 무대장치의 기능을 약화시켰다(조정아 외, 2013: 47).

학교에서 김정일 기록영화관람 들어가면 선생님이 진짜 미쳐요.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김정일 기록영화를 안 봐요. 떠들고 시끄럽게 논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안 보잖아요. 솔직히 기록영화를 누가 봐요. 다 거짓말인데(면담자 3. 2016.5.29).

위의 교사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도 북한의 정치적 선전물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록영화 관람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시장화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선전물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교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물품들이 국가가 공급해 주었으나 배급제가 붕괴된 지금 교사들은 국가가 아닌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교실에 필요한 연료, 각종 월동 재료들은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sup>10)</sup>

우리 아버지가 문화기재공급소가 다녔거든요. 군단 사령부 문화기재공급소가 있어요. 거기에 다니셨는데 기타, 아코디언, 녹음기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자재들이 많아요. 종이부터 기타도 만들고 하니까. 선생님은 제가 필요한 거지. 종이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면담자 1. 2016. 6. 15).

학생의 배치는 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 북한에서 수고 하는 게 겨울에는 비닐이 북한에서 수고 하는게 겨울에는 비닐을 수거해서 안주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거두어서 돈을 거둬서(면담자 6. 2016. 9. 14).



담임교사의 자리배치 권한은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간부들은 맨 앞에 앉아요. 제일 이쁜 아이가 맨 앞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선생하고 교감이 잘 되어야 하나까요. 학부모가 열성이면 앞에 앉아요. 학부모도 너 어디 앉았니 하고 물어봐요. 담임하고 잘 안되면 우리 애가 진짜 위축되니까 앉는 순서가 선생님과의 관심도 거든요. 중요해요(면담자 6. 2016. 9. 14).

## 2. 앞무대(Front)의 공연자: 교사와 학생

교실이라는 무대에서 공연(Goffman, 2016: 36)<sup>11)</sup>하는 공연자는 (담임)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다시 간부(열성자)와 비간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북한 한 학급의 학생수는 35-40명으로 구성된다.<sup>12)</sup> 사회주의 국가 북한사회의 특징은 모든 조직에 당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학급에 당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 학급의 당 조직을 소학교에서는 조선소년단,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고 한다. 소학교의 학급에서 소년단 조직은 분단위원장, 조직부위원장(학급장), 사상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위생위원, 꼬마계획위원) 그리고 소년단반장으로 구성된다.

학급 안에는 행정적인 학급장이 있어야 되는데 학급반장이 있고 그 학급의 행정조직 책임자고 학급 안에서 그 위에 당처럼 소년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모든 정치행사는 초급단체동맹비서가 집행하고 그 조직안에 청년동맹 비서하고 부비서가 있고 초등학교에는 분단위원장하고 분단위원들이 있어요. 이러한 구성은 소학교나 초급중학교나 다 같아요. 위원이 있고 그 밑에 소년단 반장이 있어요. 위원은 소년단반에 배속되어 있어요. 위원은 많아요. 5-7명의 위원이 있는데 학급의 모체 인원수에 따라 설정하고 소년단반을 짝개요. 초급중학교에서도 초급단체비서가 있고 청년동맹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초급중학교에서는 소년반이라고 하지 않고 분조라고 해요. 이름만 달라요(면담자 9. 2016. 9. 24).

## 3. 학급간부의 꽃: 학급반장과 분단위원장

한 학급의 간부의 수가 너무 많아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의 역할을 제외한 다른 학급간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따라서 간부의 권한이 분단위원장과 학급반장에 집중되어 있기

11) 개인이 특정 관찰자 집단 앞에서 계속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관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에 나는 공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적이고 고정된 양식에 따라 상황을 정의하게끔 하는 개인의 공연 부분에 대해서 편의상 앞무대라 부르겠다(Goffman, 2016: 36).

12) 교실의 학급구성은 시기와 공간(도시, 농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5-40명으로 학급이 구성된다.

때문에 학생들은 두 자리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제일 경쟁이 치열한 게 분단위원장하고 학급반장이예요. 나머지 것은 신경 안 써요. 나머지 간부는 신경 안 써요. 나머지는 했구나 이정도지. 두줄에 하나라고 선생님한테 잘 보일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면담자 6. 2016. 9. 14).

북한의 교실은 우리와 달리 정치적 행사로 인해 정치행사와 관련된 것은 분단위원장이 담당하고 행정적인 것 즉 정치행사 이외의 수업, 노력동원, 업간체조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급반장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생 통제가 용이한 소학교보다 초급중학교에서 학생간부 특히 학급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급반장은 학급의 얼굴이자 담임교사의 대리인으로 학급의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분단위원장(초급단체비서)은 학생들의 교내 정치생활은 문건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급반장에 필수적인 통솔력 보다는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학급반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초급단체비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일체 나가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학급반장이 똑똑하면 선생이 쉬워요. 아이들 조직하고 아이들을 데려도 오고 그게 엄청 힘들어요.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는 정치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초급단체비서는 문건을 해요(면담자 6. 2016. 9. 14).

학교에 잘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싸움도 심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학급이라는 것이 그 학급의 단결력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력 여기서 학급장의 역할이 중요해요(면담자 2. 2016. 9. 27).

고프먼은 공연자 가운데에서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배역을 정의하였다. 특히 북한 교실에서 학급반장은 일종의 바람잡이(Shillaber) 역할을 수행한다. 고프먼에 따르면 바람잡이는 평범한 관객 행세를 하지만 실은 공연자들과 한통속이다. 바람잡이는 공연자가 관객에게서 얻어내려는 반응의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공연의 전개상 필요한 순간에 관객의 호응을 유도한다(Goffman, 2016: 187). 담임교사는 바람잡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급반장을 통해 수업, 동원, 출석관리, 행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선생에게 있어 학급반장 선정은 중요한 결정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급반장이 바람잡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는 정보원(informer)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원은 공연자들에게 팀 성원으로 행세하며 뒷무대의 파괴적 정보를 얻어내 공공연하게 또는 몰래 관객에게 팔아 넘기는 사람이다(Goffman, 2016: 185-186). 고프먼이 정의한 정보원의 역할과 유사하게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

13) 북한의 초급중학교에서 학급반장은 남학생이 분단위원장(초급단체비서)은 여성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는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교실과 교실 밖의 정보를 담임교사에게 넘기는 담임선생의 끄나풀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는 분단위원장이 담임선생 끄나풀이고 대개 그렇게 보면 그래요. 학급반장도 중요하지만 학급반장은 총알받이예요(면담자 6. 2016. 9. 14).

학생들이 생활총화를 싫어하죠. 그러나 나는 분단위원장을 했으니까 생활총화 시간이 기다려져요. 나는 선생님 옆에 앉아서 좋잖아요. 으쓱하죠(면담자 1. 2016. 6. 15).

#### 4. 교실의 뒷무대: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만남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와 학급반장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간부와 비간부의 서열화를 구조화<sup>14)</sup>하는 북한의 교실에서 학생들은 분단위원장과 학급반장의 자리를 선호한다. 이렇듯 북한의 교실은 간부학생과 비간부학생간의 권력의 격차를 가시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간부 욕구를 극대화 한다.

좋지요. 기막히죠. 완전 멋있죠. 여하튼 일단은 제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우월감이 많이 들어요. 애들 심기라는게 두 줄에 세알 달면 욕심에 세 줄에 세알 달고 싶다 이거죠. 단위원장하고 싶은 거죠. 그게 참 북한에 서열화는 그것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면담자 1. 2016. 6. 15).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북한 사회에서 분단위원장이나 학급반장이 된 자식들은 학부모의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하나의 교육 자본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담임교사를 만나 자식들의 자리를 부탁한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기 아들이 분단위원장하면 좋아하니까 으쓱하고 좋아하죠(면담자 8. 2016. 9. 11).

제가 나보다 잘 하잖아요. 무조건 던고 일어나야돼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부모는) 니가 가보다 못하면 학급반장 못하니까 똑바로 해라 그러는 거죠(면담자 1. 2016. 6. 15).

14) 대체로 군인들처럼 계급표식을 해줘요. 팔에다가 소년단 계급 표식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 주면 사이즈가 요정도 되잖나? 여기서 분단위원장은 줄을 두 줄 굵고 이전에는 두 줄 그었는데 저희 때부터 별을 3개 달아줘요, 3개를 달아서 꼭지가 있고 줄은 붉은 줄에 붉은 별이고 이게 분단위원장이고 조직부위원장은 줄은 2개인데 별이 2개, 소년반장은 줄 하나에 별이 3개 그것을 보고 간부표시라고 하는데 일반학생은 계급이 없어요(면담자 2. 2016. 9. 27).

학급에서 학급간부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요구하는 체면 때문에 거래를 학부모에게 먼저 제의하지 않는다.

선생의 시야로 먼저 선택을 안 해요. 분단위원장 하겠다는 부모들은 벌써 찾아와요. 큰 학교에서 경쟁률이 대단해요. 여기 대통령 선거 못지 않아요(면담자 2. 2016. 9. 27).

학급간부의 기준은 학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의 선정기준은 바로 부모의 경제력이다. 학급반장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지만 이외에 학생이 가진 통솔력과 개인적 능력이 필요하다.

분단위원장이면 담임선생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요. 생활적인 측면, 잘 살아요 되죠. 선생님 집에 가정 대소사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조를 해야 되요(면담자 6. 2016. 9. 14).

분단위원장은 별로 안 나서잖아요. 여학생이라도 크게 문제 없어요. 분단위원장은 학생 능력이 떨어져도 뒤에서 선생님이 문건부터 시작해서 선생이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100% 학부모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급반장은 학생의 상태가 좋아야 되요. 학생이 통솔력이 없으면 그 학급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요(면담자 3. 2016. 5. 29).

연출가로서 담임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상영되는 연극을 효과적으로 공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와 학급반장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프먼이 지적한 것처럼 연극의 연출가는 선견지명과 기획력을 발휘하기 위해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특히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학급반장과 정보원 역할을 하는 초급단체비서(분단위원장)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두 자리의 학생간부 선정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만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학부모이다(Goffman, 2016: 275).<sup>15)</sup>

교사는 학생을 잘 만나야 되요. 초급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학생을 잘 못 만나면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못 받잖아요(면담자 6. 2016. 9. 14)

초급단체비서와 학급반장의 학부모는 졸업할 때까지 담임선생의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력이 교사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의 은밀한 거래가 외부에 알려지게

15) 공연자들에게는 팀을 위해 불의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남아 있는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분별력과 주의력이 필요하다. 연극적 용의주도함의 발휘는 잘 알려진 인상 관리 기법 형태를 띤다. 이를 위해 공연자가 필요한 것은 첫째로 충성심이 있고 잘 단련된 사람을 팀 성원으로 뽑는 것이다(Goffman, 2016: 275).

되면 교사들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정과정에서 담임교사는 신중해야 한다.

사방에서 경청하는 거죠. 애는 어떻게 재는 어떻게? 먼저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를 통해 알아 보죠.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되요. 생활기록부 보다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요. 교사를 하면서 학부모들과 많이 친하게 되거든요. 학부모와 긴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어떻더라 어떤 유형이더라 한 번을 주고 열배를 줬다고 소리친다. 사전에 알아보는 거죠(면담자 6. 2016. 9. 14).

담임교사가 핵심간부(초급단체비서와 학급반장)를 선정할 때 학부모의 경제력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지만 학부모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교실에서의 공연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지나친 의존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활이 괜찮으니까 학부모 눈치를 안 본거죠. 그런 게 있어요. (학부모가)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적 예측이 정치적 예측이다(면담자 3. 2016. 5. 29).

## 5. 팀의 구성: 담임교사-핵심간부(분단위원장, 학급반장)-학부모

학급의 핵심간부인 분단위원장, 학급반장의 선정을 통해 담임교사-핵심간부-학부모간의 팀이 형성된다. 고프먼에 따르면 팀<sup>16)</sup>은 상황정의를 투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군의 사람이다. 담임교사-핵심간부-학부모의 팀 구성은 핵심간부 자리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담임교사-핵심간부-학부모의 팀 공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거래는 팀의 구성원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Goffman, 2016: 135). 특히 담임교사-핵심간부-간부학부모의 팀 구성에 있어 특징은 스승-제자, 스승-학부모라는 존재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고프먼에게 있어 존재행동은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일종의 약속을 포함한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의례상으로는 행위자가 상대의 기대와 의무를 받아들이고 지지하겠다는 서약이다. 따라서 존대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관련 규칙을 통해 쌓아올린 자아 관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셈이다(Goffman, 2016: 70). 학급간부를 매개로 잘 기획된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은 일종의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충성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분단위원장 했는데 우리 엄마가 담임선생한테 고이고 선생한테 멸사봉공했죠 (면담자 1.

16) 팀이란 상황 정의를 투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팀은 집단의 일정이지만 사회구조 및 사회 조직과 관련된 집단이 아니다. 팀은 적합한 상황 정의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에 관련된 집단이다(Goffman, 2016: 135).

2016. 6. 15).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충성서약은 자식인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에게도 적용된다.

아이들을 대략 보면 학급반장, 초급단체비서는 담임선생한테 충성이지(면답자 4. 2016. 10. 19).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은 보통 뒷무대라고 할 수 있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실에서 함께 공연을 할 경우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기에 한 번씩 담임교사와 함께 학부모총회라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공연을 한다. 담임교사는 학부모들과의 공연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프먼의 언급처럼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서로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공연에서 핵심간부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Goffman, 2016: 52-53).<sup>17)</sup>

보통 학기에 한번 학부모총회를 해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성적증을 나눠 줘요. 학부모는 여기서 자식의 성적을 봐요. 선생은 학부모위원장 1명을 시키는데 어찌다 모이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선생은 나가서 20-30분 기다려요. 학부모위원장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 수고했는데 뭐 좀 옆소(돈). 내가 말 못하잖아요. 학부모위원장이 학생들의 성적증을 다 거두어서 교탁에 놓고 나오지(면답자 9. 2016. 9. 24).<sup>18)</sup>

앞서 학급반장이 바람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장<sup>19)</sup>의 역할 또한 바람잡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교실 밖으로 나간다. 담임선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학부모위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성적증과 함께 교탁에 놓고 담임선생에게 수고했다는 말(일종의 신호)로 밖에 있는 담임선생을 부른다. 학부모위원장의 행동은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과의 체면을 서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교사와 학부모간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17) 사회관계의 전형적인 의무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상대의 체면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성원들은 흔히 체면을 공유한다(Goffman, 2016: 52-53).

18) 체면이 위협 받으면 체면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작업을 일차적으로 시작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위협받은 당사자인지, 위협을 가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관객일 뿐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작업을 누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대신 나선다. 이를 누군가가 담당해부면 모두의 숙제를 풀어주는 셈이다(Goffman, 2016: 39).

19) 일반적으로 학부모위원장은 학급반장 또는 초급단체비서의 부모가 맡는다.

## 6. 담임교사와 학생의 공연

뒷무대에서의 거래를 통해 담임교사-학급반장·초급단체비서-학부모의 팀이 구성되었다. 뒷무대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돈을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면 교실 앞무대에서는 학부모의 성의에 대한 보답을 이제 담임선생이 보여주어야만 한다.

분단위원장은 학생 능력이 떨어져도 뒤에서 선생님이 문건부터 시작해서 선생이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면담자 3. 2016. 5. 29)

성적을 부여하는 권한은 교사의 재량이므로 담임교사는 이러한 재량권을 통해 분단위원장(초급당비서), 학급반장의 성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는 담임선생의 대리인이라는 심리적 후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은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의 말을 따라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 웬만하면 분단위원장을 건드리지 않아요. 분단위원장을 비판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면담자 5. 2016. 10. 15).

분단위원장은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은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무조건 따라야 해요(면담자 1. 2016. 6. 15).

담임선생·학급반장·초급단체비서의 팀 공연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학급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임선생을 위해 학생들 앞에서 바람잡이로 나서는 학급반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학급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생의 체면이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담임선생은 학급반장이 학생들을 잘 통솔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학급반장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다양한 무대 연출을 해야 한다.

반장이 역할이 못하면 아이들이 나는 재 보다 잘하는데 선생이 사람 잘못 보네. 선생은 잘못 시켰더라고 할지라도 잘 하도록 수시로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조직하고 장악해라. 그렇게 하고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편다(면담자 9. 2016. 9. 24).

담임선생·학급반장·초급단체비서의 팀 공연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의 관계이다. 소학교에 비해 학생이 성장한 초급중학교에서 학급반장과 초급단체

비서가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패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담임선생은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의 패가 형성되지 않도록 두 학급간부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학급반장하고 분단위원장하고 패가 갈라지면 담임선생님 밖에 조절을 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기폭을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담임의 교육자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학생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하죠(면담자 3. 2016. 5. 29).

담임교사-학급반장-초급단체비서의 팀공연에 있어 담임교사를 더 위태롭게 하는 상황은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가 협력하는 상황이다.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가 협력할 경우 담임교사의 권위를 넘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임선생의 두 간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때는 학급장과 초급단체비서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뭉뚱 뭉치면 더 무서워요. 선생을 넘어요. 선생을 테두리 놓고 자기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옛말에 정치를 쪼개야 한다고 하는데 야들도 같아요. 이 자식들이 종파적인 것이 있네. 선생은 하루 아침에 칼질하면 끝나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예를 들어 학급반장의 잘못을 이유로 너 지금부터 학급반장을 임시중지하라. 행사에 나서지 말라고 하면 되요. 잘못을 걸면 다 걸러들죠(면담자 4. 2016. 10. 19).

## 7. 또 하나의 팀: 담임교사-비간부학생

교실이라는 앞무대에서 연극이 효과적으로 연출되기 위해 담임교사는 조력자로 충성스런 학생(학급반장, 초급단체비서)이 필요하다. 담임교사-학급반장-초급단체비서라는 공연팀이 학부모와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실에서 학생은 간부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담임교사는 간부는 물론 간부가 아닌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교실의 미시정치적 구조에서 담임교사는 비간부 학생과도 팀을 구성하여 공연을 잘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출가로서 담임교사는 담임교사-비간부학생 팀이 각자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단련시켜 학급의 구성원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Goffman, 2016: 275).<sup>20)</sup> 북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신경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학급 전체의 출석률이다(조정아 외, 2013: 46).

20) 팀 성원 전체의 충성심과 훈련된 기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아내는 것이다. 충성심과 단련 두 가지 속성을 팀 성원들이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공연을 순조롭게 치를 가능성 그리고 공연에 부여한 진지성, 중요성, 품격이 안전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Goffman, 2016: 275).



북한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출석률이라고요. 하나로 뭉치자니까 공부는 못해도 그걸 최고로 본 다 말이에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생이 거기다가 신경 쓰는 거지. 너는 왜 안 나오냐. 너무 그러니까 선생이 힘들더라고요(면담자 9. 2016. 9. 24).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집안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간부학생 뿐만 아니라 이들 비간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학생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급간부가 되고자 하는 욕구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비간부학생들이 언제라도 담임선생의 노선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위험한 공연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임선생은 이들 비간부학생들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도표라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물리 점수 김누구 4점, 공개해요. 열성을 내는 아이들이 1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60-70%는 실력은 없는데 중간정도구요. 20-30% 아이들은 성적에 관심 없어요. 야들은 공부 못 하는거에 대해 창피한 것을 몰라요. 어떤 때는 2점 받은 아이를 3점으로 올려요.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까봐. 문제는 성적이 아니라 학급이라는 덩 어리를 잘 벗어나지 않게 잘 묶어놔야 해요. 선생이 성적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돼요. 실지 잘하는 것은 경쟁을 시키고 나머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올려줘서 비슷하게 만들어줘요(면담자 4. 2016. 10. 19).

상기의 교사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언급한 것처럼 교사는 성적에 대한 재량권을 간부학생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또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사용하여 이들 비간부학생들의 체면을 잃지 않는데 활용한다. 비간부학생들 역시 간부학생 만큼 교사에게 있어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출석률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을 통해 내려오는 각종 노력동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간부학생을 잘 관리해야 한다.

퇴학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 담임선생이 일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회동원이 많잖아요. 제가 나가서 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잘 포섭해야 돼요(면담자 3. 2016. 5. 29).

## 8. 담임교사의 인상관리

당과 장마당이라는 관계에서 무계추가 장마당으로 점차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교사들은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무대 위와 뒤에서 인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교사의 체면유지에 있어 당의 역할은 장마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기마다 노작을 몇 편 발취 하고 덕성노트가 따로 있어요. 김일성 노작 따로 있고 김정일 노작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교감선생님이 주잖아요. 교수강습소에서 나와서 검열하는데 이것을 남의 것 보고 베껴요. 그것은 공동과제니까 우리 분과장 선생님께 그건 아무래도 핵심 당원들이 모범이 되잖아요. 그것을 베껴야 하는데 심각한 것은 초급중학교니까 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통으로 주면서 이거 써(면담자 6. 2016. 9. 14).

상기 교사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은 교사의 정치적 과제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노작 발취와 같은 과제는 교사의 몫인데 교사는 거리낌 없이 학생들에게 이 과제를 시킨다. 이 상황에서 교사의 체면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같은 정치과제와 관련된 담임교사의 상황정의는 사건이 벌어지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대면관계에서 당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경건한 정치적 의식이었던 교사의 발취의례가 학생이 베끼는 행위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Goffman, 2013: 71-72).<sup>21)</sup>

생활총화를 어떤 선생은 형식상으로 하는데 저는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생활총화 시켜요(면담자 4. 2016. 10. 19).

위의 교사언급에서처럼 생활총화시간이 점차 형식화 되고 있는 추세 역시 교실에서 당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담임교사는 자신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생이 선생에 대해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선생의 가정형편 이에요. 잘 살 때는 괜찮은데 못살면 철저히 가려야 해요. 선생이 못살면 갈보는 걸 철저히 단속하게 되요.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면담자 9. 2016. 9. 24).

그러나 담임교사의 인상관리는 쉽지 않다. 매년 담임교사와 바뀌는 우리의 교육체계와는 달리 북한의 교사는 최소 3년 이상 담임을 맡아야 하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적정한 거리 유지가 쉽지 않다. 아래 교사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교육을 많이 해보니까 3-4년만 맡아야지 4년부터 선생은 어떻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요(면담자 9. 2016. 9. 24).

21) 관계하는 상대에 따라 방향과 크기는 달라지지만 사람에게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람의 인성 가치가 무너진다. 이러한 영역은 한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영역이다. 너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명예에 모독이 되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개인의 명예에 모독이 될 그 고유 영역의 반경을 침범했다는 뜻이다(Goffman, 2013: 71-72).

학부모들 또한 담임교사의 경제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거리유지가 필요하다. 만약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교사-학부모 팀의 공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학부모도 담임선생의 경제적 수준을 봐요. 테스트해요. 저 선생이 어렵다 할 때는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면담자 6. 2016. 9. 14).

교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학부모에게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면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리 물리선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먹는 것 밖에 안 찾아요. 학교도 그런 사람에게 담임을 안 줘요. 학교 얼굴이니까. 담임을 시키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은 무지막지해요(면담자 3. 2016. 5. 29).

이에 담임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와의 거리유지 전략을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시장화 과정에서 북학의 담임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은 물론, 학부모, 간부학생, 비간부학생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체면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담임선생들이 머리가 아파요. 담임선생님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담임을 하면 그런데서 머리를 써야 해요(면담자 9. 2016. 9. 24).

#### IV. 맺는말: 시장화와 담임교사의 인상관리

이 연구는 고프먼의 체면 개념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대면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공동체의 규범 가운데 하나인 체면은 집단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 체면을 둘러싼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집단적 자화상을 일치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압력이 만들어진다(Elias· Scotson, 2004: 74) 따라서 체면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행동을 강요하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면은 미시 권력적 속성을 지닌다.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공간에서 체면은 교사와 학생이 속으로 어떻게 느낀 간에 겉으로 유지해야 할 틀을 규정한다. 고프먼은 권력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고프먼의 권력개념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권력현상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시장화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지금 북한사회에서 학급간부를 결정하는 것은 담임교사에게 있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담임교사의 생활을 책임져 줄 경제적으로 유복한 학부모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담임교사는 학교행정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학급의 출석관리, 각종 노력동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급을 이끌 전위인 학급반장과 초급단체비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급간부 선출이라는 사건은 교실이라는 무대 밖에서는 담임교사의 경제생활을 책임질 학부모를, 교실 안에서는 담임선생의 노선을 학생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학생전위를 연결하여 하나의 팀을 결성케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간부-학부모 팀과의 공연에서 학부모의 경제력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며 초급단체비서와 학급반장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교사의 체면, 즉 권위가 위협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학급간부-학부모의 공연과 함께 비간부학생과의 공연연출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 비간부학생들 또한 각종 동원, 출석관리, 세부담 등 담임교사에 부여된 학교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비간부학생들이 교실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에 담임교사는 전체 학급차원에서 간부학생-비간부학생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담임교사는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학생과의 공연을 효과적으로 연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담임교사가 효과적인 무대 연출을 위해 사용할 카드는 과거에 비해 많지 않다. 북한 사회의 시장화는 미시적 사회공간인 북한 교실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는 한편, 당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당의 권력을 활용한 카드의 활용이 점차 제한되고 있다. 계획경제의 붕괴는 담임교사의 중요한 과제인 생활총화 관리, 노작 발취와 같은 정치적 의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급의 출석관리 및 노력동원 그리고 교사의 생계유지와 같은 경제적 의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있어 제자보다는 고객, 동원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담임교사가 체면유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게임에서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미시적 사회 공간인 교실에서도 불가역적인 시장화의 추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2)</sup>

22) 북한 교실의 시장화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당의 교육정책 약화를 뜻한다. 북한 교육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고프먼의 접근이 지금-여기라는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 교실과의 면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참고문헌

- 강수택(1996).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의한 일상생활론 연구; 미드와 고프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2), 417-448.
- 김광기(1989). 물화된 실재와 자유에 관한 연극론적 사회학과 현상학적 사회학의 비교연구; 고프만(Erving Goffman)과 버거(Peter L.Berger)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46, 187-185.
- 김광기(2000). 고프만(Erving Goffman), 가펩켈(Harold Garfinkel), 그리고 근대성 : 그들의 1950년대 초기 저작에 나타난 근대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4(2), 217-239.
- 김종건, 황재인(2002). 북한 학교교육의 교육방법 연구. **교수논총**, 18(1), 1-22.
- 박찬석(2008). 북한의 학교관리론과 교원론 연구. **통일교육연구**, 6(1), 29-51.
- 박치현(2004). 습속화된 권력과 성찰적 자아 : 고프만과 엘리야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옥일남(2011). 북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 연구. **시민교육연구**, 43(2), 91-120.
- 윤종진(2005). 북한 인민학교 공산주의 도덕에서의 정치사상교양. **초등도덕교육**, 17, 137-152.
- 이향규(2000). 북한 학교의 교과 지식: 관리 체계와 특징 1945-1950. **현대북한연구**, 3(1), 255-291.
- 임미화(2003). 북한 초등학생의 정체성 교육 연구. **초등사회과교육**, 15, 149-173.
- 임재천(2013). 북한 초등학교에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 **한국학연구**, 47, 241-269.
- 장현미(2014). 고프먼 관점에 따른 자아의 유형화와 커뮤니케이션적 함의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자아에의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325-370.
- 정호범(2005).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의 내용구성원리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12(1), 199-228.
- 조정아, 조영주, 조은희, 최은영, 홍민(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2003). 북한의 학교 규율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 **아시아교육연구**, 4(3), 121-148.
- 조정아(2004).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 문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4(1), 121-146.
- 차승주(2010). 북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기체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종렬(2011).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여성의 '성스러운 게임' : 고프만의 시각에서. **사회이론**, 39, 3-38.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북한의 이해**. 서울: 대원문화사.
- 한만길(1995). 북한의 학교와 학생의 하루 생활. **교육개발**, 95, 115-119.

- Elias, N·Scotson. (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The established and the outsiders] (박미애 역).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Goffman, E. (2013). **상호작용 의례: 대면행동에 관한 에세이**[Interaction ritual] (진수미 역). 현암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Goffman, E. (2016). **자안연출의 사회학**[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진수미 역). 현암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59).
- Ritzer, G. (2010). **사회학 이론**[Sociological theory] (김왕배 외 역). 한울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논문접수 2017년 2월 5일 / 1차 심사 2017년 3월 10일 / 게재승인 2017년 3월 23일

\* 안지호: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동·서독 행정 비교연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지도교수: Klaus Schroeder)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 사업단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관으로 일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질적연구방법론, 비교·발전행정, 통일정책, 북한의 교육, 행정, 문화이다.

\* E-mail: braudel2@snu.ac.kr

## Abstract

## Microscopic Study of North Korean Schools' Class Rooms -Focusing on Dramaturgical Approach of E. Goffman

Ahn, Jiho\*

This study approaches a classroom situation in the North Korea schools as a micro social space based on the main concepts developed by Goffman's dramaturgical approach that includes face to face interaction, facing, team, stage, impression management, situation and significant events.

This study regards classroom as a stage of drama and describes how a homeroom teacher interact with classroom students, especially focused on the electing the executive members of classroom - the class president and the classroom secretary. As teachers become economically vulnerable in North Korea, they tend to be decisive in electing the executive members of classroom, whose parents' economic support is deeply inter-wined with the teacher's economic life. In addition, the class president and the classroom secretary play key roles as the loyal supporters in performing administrative works or mobilizing other students. Therefore, the election of classroom executives is a significant event to influence on the teacher's economic life and designate the representative or the teacher.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classroom based on the election and classroom management.

Key words: Erving Goffman, Presentaion of Self, Dramaturgical Approach, face-to-face interaction

---

\* Senior Researcher i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Government Competitiveness

